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5. 07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신명기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015 July

MON	TUE	WED	THU	FRI	SAT
		1 1교구	2 11교구	3 9교구	4 전교인
6 전교인	7 14교구	8 2교구	9 17교구	10 7교구	11 전교인
인 13 전교인	14 12교구	15 3교구	16 16교구	17 6교구	18 전교인
전교인 20 전교인	21 15교구	22 4교구	23 13교구	24 8교구	25 전교인
26 전교인	27 전교인	28 18교구	29 5교구	30 10교구	31 1교구

I have been crucified with
but Christ lives in me.(Gala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7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교회 주요 일정

7월 5일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7월, 개인 전도 계획

7월 1주 (7월 1일 ~ 7월 5일)

7월 2주 (7월 6일 ~ 7월 12일)

7월 3주 (7월 13일 ~ 7월 19일)

7월 4주 (7월 20일 ~ 7월 26일)

7월 5주 (7월 27일 ~ 7월 31일)

7월 6주 (8월 1일 ~ 8월 7일)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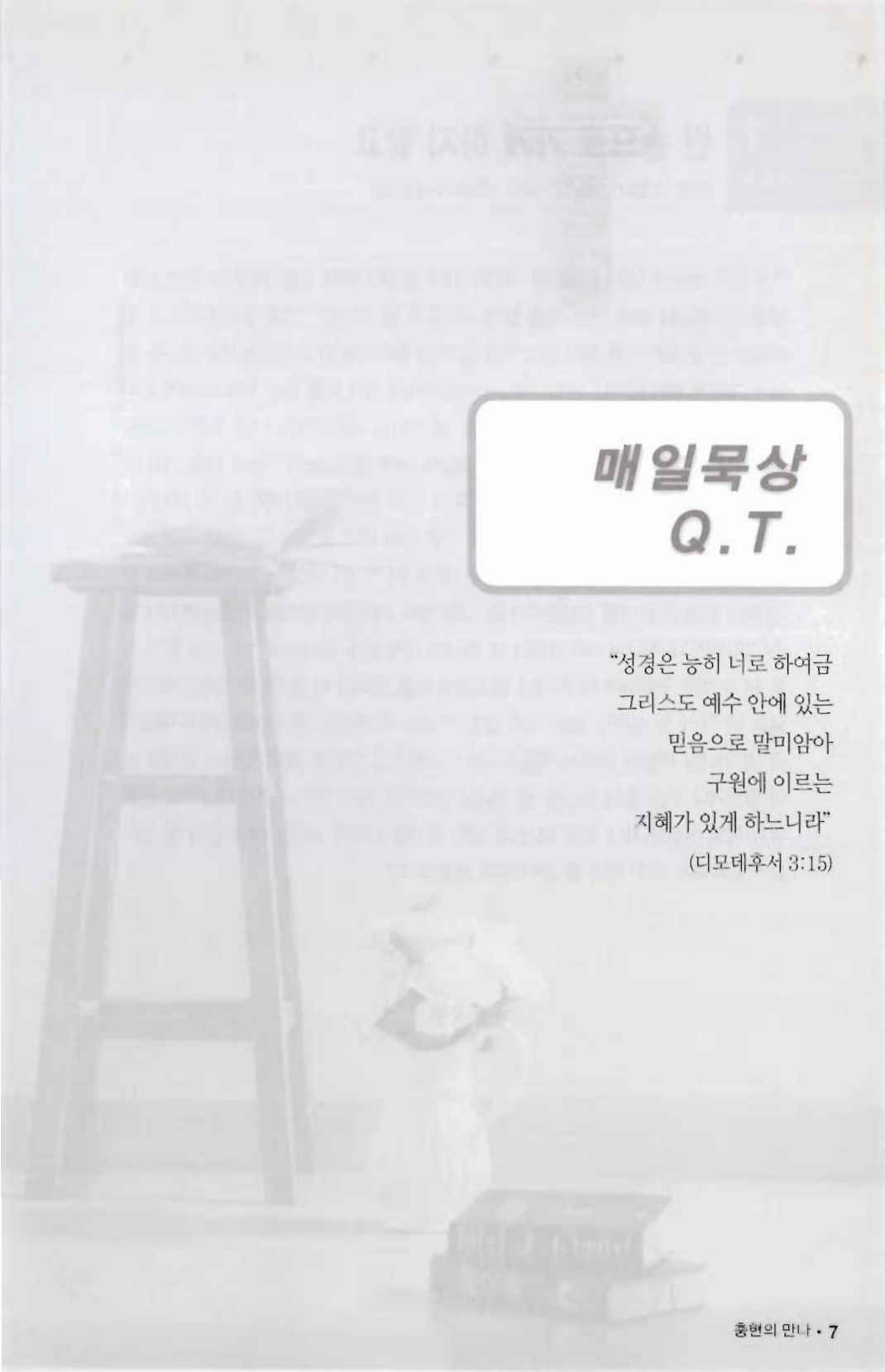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⑪ 장로·안수집사·권사파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⑫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July **1**
수요일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본문 신명기 15:12~23 찬송가 429장

¹²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¹³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¹⁴네 양 무리 중에서도 타작 마당에서도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¹⁵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¹⁶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¹⁷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¹⁸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¹⁹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²⁰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²¹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²²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²³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히브리 남종, 혹은 여종을 일곱째 해에 놓아 주어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12절). 또한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13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또한 종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했던 것입니다(14절). 주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15절).

신자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8~19).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처럼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서 면제년에 종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이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어떻게 도울 계획입니까?

July 2
목요일

유월절

본문 신명기 16:1~8 찬송가 232장

“¹아빔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빔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²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³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⁴그 이레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⁵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⁶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⁷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⁸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본문 해설

‘아빔’이란 ‘씩이 트기 시작한다’이라는 뜻으로 봄철을 의미합니다(1절). 이 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1절).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며(2절), 특히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3절)을 먹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누룩이 보이지 않게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고기는 밤이나 아침까지 두지 않아야 했습니다(4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그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전 5:7).

유월절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유월절과 성찬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성찬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July **3**
 금요일

함께 즐거워하되

본문 신명기 16:9~17 찬송가 588장

⁹알곡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알곡 주를 세어 ¹⁰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 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¹¹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¹²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¹³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¹⁴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¹⁵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¹⁶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¹⁷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본문 해설

유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칠칠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기간이며, 밀 추수가 거의 끝나는 기간입니다(9절). 이 절기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억하게 했습니다(12절). 또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16절).

이스라엘은 이 모든 절기를 통해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성도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방식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며 기뻐할 뿐입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칠절과 초막절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기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본문 신명기 16:18~17:13 찬송가 516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¹⁸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¹⁹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²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²¹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²²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²³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²⁴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²⁵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²⁶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²⁷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²⁸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²⁹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³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³¹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³²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³³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본문 해설

주님께서는 각 성에 재판장을 두라고 명하십니다(18절). 재판장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은 불공정한 재판의 구체적인 사항과 모습들을 보여줍니다(19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4절).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그 일이 확실한지를 판별하고 재판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판별한 후에는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6절). 이는 '악을 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7절).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13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눅 5:32).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요 14:6).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묵상 질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July 5
주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본문 신명기 17:14~20 찬송가 38장

¹⁴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¹⁵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¹⁶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¹⁷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¹⁸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¹⁹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²⁰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왕을 세울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약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14절). 그리고 그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거나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도록 해야 했습니다(16절). 또한 왕은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17절). 왕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19절).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의 마음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20절).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왕을 세울 때, 그에게 주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July 6
월요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본문 신명기 18:1~8 찬송가 435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와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㉒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불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㉓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㉕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㉖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㉗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분깃도, 기업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2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본문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보내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음에도 세상의 것이 더욱 커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본문 신명기 18:9~22 찬송가 342장

⁹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¹⁰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¹¹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¹²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¹³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¹⁴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¹⁵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¹⁶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¹⁷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¹⁸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¹⁹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²⁰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²¹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²²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을 본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9~11절). 출애굽 2세대가 그 민족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 중에서 그들을 위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15절). 이것은 출애굽기 20:19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선지자를 세워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16절). 그런데 선지자는 주의 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해서는 안 되었고, 둘째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20절).

우리에게는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세대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용 질문

내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July 8
수요일

명령을 지켜 행하여

본문 신명기 19:1~13 찬송가 419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㉑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㉒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㉓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㉔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㉕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㉖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㉗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㉘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㉙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㉚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엿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㉛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㉜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살인자를 위한 도피처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2~3절).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특별히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으며(4절),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9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무죄한 자를 보호해 주는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본문 신명기 19:14~21 찬송가 149장

¹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¹⁵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¹⁶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¹⁷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 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¹⁸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¹⁹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²⁰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²¹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은 이미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게 된 땅이 아니기에 이들은 그 땅을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며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욕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4절에 나타난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도둑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십계명 중 8계명과 10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탐심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에 대해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적용 질문

현재 당신의 삶에서 생겨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신명기 20:1~9 찬송가 348장

1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
 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
 여 그들에게 3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
 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
 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5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 여자와 약혼하
 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8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
 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9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
 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 백성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야 했습니다(2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적군들과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용 질문

요즘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본문 신명기 20:10~20 찬송가 221장

¹⁰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¹¹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¹²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¹³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¹⁴너는 오직 여 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 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 라 ¹⁵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¹⁶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¹⁷곧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 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 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¹⁸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¹⁹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 도끼를 돌려 그 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²⁰다만 과목이 아 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 킬 때까지 쓸지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10절). 그리고 그 성읍이 화답을 하면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11절). 그러나 화평을 거절하여 싸우게 되면 그 성읍을 에워싸 성읍 안의 남자는 다 죽이고(13절), 여자와 유아, 가축들과 성읍의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14절). 그런데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서 기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자를 하나도 살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성읍 안에 호홉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이방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이 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물들어 범죄하지 않도록, 이방인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가 틈타는 것을 철저히 막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화평을 외쳐야 합니다.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당신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본문 신명기 21:1~9 찬송가 266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
 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②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
 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③그 피살된 곳에
 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
 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④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
 을 것이요 ⑤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
 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
 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⑥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⑦말하기를 우리
 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⑧여호
 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
 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⑨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서 제할지니라

본문 해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피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땅이 더럽혀졌음을 의미했기에, 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1~2절).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피살된 시체가 있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목을 꺾어야 했습니다.

암송아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누구도 대신해서 흘릴 수 없는 피입니다. 이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속죄할 수 있는 구속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제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6~9절).

묵상 질문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적용 질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

본문 신명기 21:10~23 찬송가 536장

¹⁰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¹¹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¹²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
 고 손톱을 베고 ¹³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¹⁴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
 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중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¹⁵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
 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¹⁶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¹⁷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
 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¹⁸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
 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¹⁹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
 들에게 나아가서 ²⁰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
 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²¹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이 그를 돌려 처죽할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²²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
 에 달거든 ²³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전쟁 중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를 아내로 취해야 했습니다(10~14절). 또한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미움을 받는 여인이 낳은 아이가 장자이면 장자의 상속권은 그 아이에게 주어야 했습니다(15~17절). 그리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어야 했습니다. 이는 악을 제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18~21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나타내는 일에 힘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여인들을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멸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미움을 받는 자의 이들을 장자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주위에 사회적 약자(탈북민, 고아, 독거노인 등)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

본문 신명기 22:1~12 찬송가 458장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5)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6)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8)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9)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10) 빼앗길까 하노라 11)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여 갈지 말며 12) 양 털과 베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3)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겹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1) 히, 성물이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의 소, 양,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못 본 체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을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나귀라도,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못 본 체하지 말아야 했습니다(1~4절). 또 여자와 남자가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5절). 새의 동지를 가져올 때에도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 주고 새끼만 잡아야 했습니다(6~7절). 또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하고, 소와 나귀를 같은 쟁기로 연결하여 갈지 말아야 하며, 양 털과 베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고, 겹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9~12절).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못 본 체하지 말고', '~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 (5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증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 질문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바꿔 입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거룩하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본문 신명기 22:13~30 찬송가 254장

¹³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¹⁴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¹⁵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¹⁶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¹⁷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यो ¹⁸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¹⁹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²⁰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²¹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²²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²³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²⁴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यो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²⁵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²⁶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²⁷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²⁸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²⁹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³⁰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아내를 미워하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고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성읍의 장로들은 이를 판가름하여 누명을 씌운 자를 잡아 때리고, 누명을 씌운 남편은 아내에게 은 100세겔을 주어 그 남자가 아내를 평생 버릴 수 없게 해야 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말이 참이었다면 그 아내를 끌어내어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악과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22절). 약혼에 대하여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경우 그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 처녀는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강간한 남자만 죽여야 했고, 처녀는 무죄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때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그를 아내로 삼아 평생을 책임져야 했습니다(23~29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음란과 방탕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결의 영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순결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음란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음탕과 방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결의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무엇이 영적인 간음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은 오늘 어떻게 순결을 지킬 것입니까?

여호와와의 총회에

본문 신명기 23:1~14 찬송가 338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²사생자는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³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⁴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⁵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⁶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⁷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⁸그들의 삼 대 후 자손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⁹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¹⁰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¹¹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¹²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¹³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¹⁴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본문 해설

사생자와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십 대들은 영원히 여호와와 그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1~3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방인의 예식을 그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방인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암몬, 모압 사람들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잘못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4~6절).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을 치러 갈 준비를 할 때에 그 어떤 부정도 저질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영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불결한 것도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9~14절).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영을 거룩히 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총회에 들어갈 자는 누구이며 들어가지 못할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여호와와 그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만유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묵상 질문

여호와와 그의 총회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적용 질문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게 요구하시리니

본문 신명기 23:15~25 찬송가 407장

¹⁵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¹⁶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나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¹⁷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¹⁸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중한 것임이니라 ¹⁹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²⁰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²¹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²²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²³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명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²⁴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²⁵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 중 남자나 여자나 윤락행위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17~18절). 또한 형제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타국인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때에는 이자를 받아도 되었지만, 형제에게 꾸어 주었을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갚기를 더디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꼭 실행해야만 했습니다(21~23절). 또한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는 담지 말아야 했으며,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이삭을 따도 되지만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야 했습니다(24~25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을 행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총을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쳤다면, 오늘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입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본문 신명기 24:1~9 찬송가 20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6 사람이 멧돌이나 그 위 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8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9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디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본문 해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후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기쁘지 않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난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1~2절). 그런데 만약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돌려보냈거나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이미 그 여자의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3~4절). 사람이 새롭게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 남자는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하며, 아무 직무도 맡기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일 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5절). 또한 전당 잡은 일과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는 일은 악을 행하는 일로서 삼가야 했습니다(6~9절).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의 결론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7절), '힘써 지켜 행하라'(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미리 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

새롭게 아내를 맞이한 남자는 일 년 동안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행하라

본문 신명기 24:10~22 찬송가 449장

¹⁰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¹¹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¹²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¹³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¹⁴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¹⁵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리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¹⁶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¹⁷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¹⁸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¹⁹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²⁰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²¹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²²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본문 해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자신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 살이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기 원 하셨습니다. 즉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언약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땅 끝까지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위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어떠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이웃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 사람이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
 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5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
 니라 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
 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
 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
 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 그의 형
 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
 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1절).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자를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하여 그 생명을 보존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베푸시고(3절), 짐승까지도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에라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과도하게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는 가족이 함께 그 과부를 돌보게 함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들에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태형을 몇 대까지 허용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누구에게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July 21
화요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본문 신명기 25:11~19 찬송가 459장

¹¹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¹²너는 그 여인의 손을 짚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¹³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¹⁴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¹⁵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¹⁶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증하니라 ¹⁷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¹⁸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¹⁹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 안에서 폭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매우 단호하며 정확합니다(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쳐야 합니다(암 5:24).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자신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맘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죄악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어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와의 제단 앞에

본문 신명기 26:1~11 찬송가 38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①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②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③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④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⑤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⑥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⑦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⑧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⑨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⑩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정해진 규례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정해진 규례를 지키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본질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이기 이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주셨습니다(6~9절).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하며 경배해야 했습니다(10~11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나뭇잎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본문 신명기 26:12~19 찬송가 546장

¹²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¹³그리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¹⁴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¹⁵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¹⁶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¹⁷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¹⁸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¹⁹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본문 해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은 미덕이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떼어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며, 그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었음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십일조를 마땅히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50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행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무엇입니까?

July 24
금요일

다 지킬지니라

본문 신명기 27:1~10 찬송가 311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㉒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㉓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㉔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㉕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㉖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㉗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㉘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었으니^㉙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본문 해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두 가지 의식 규례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돌기둥에 기록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세운 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6~7절). 이것은 희생 제사와 화목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임을 증거하고,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묵상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어느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지니라

본문 신명기 27:11~26 찬송가 366장

¹¹모세가 그 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¹²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대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¹³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예발 산에 서고 ¹⁴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¹⁵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¹⁶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¹⁷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¹⁸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¹⁹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²⁰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²¹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²²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²³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²⁴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²⁵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²⁶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본문 해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선포한 축복과 저주의 율법 중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에 맞추어진 12가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멘 할지니라"라는 말씀은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듣기 싫은 말씀 앞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후 1:19).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하고 '아니라'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아멘' 하며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본문 신명기 28:1~9 찬송가 204장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②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③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④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⑤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⑥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⑦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⑧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⑨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본문 해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1절). 이 복은 개인적인 여섯 가지의 복(3~6절)과 민족적인 복(7~8절)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별된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면 그들은 영토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서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본문 신명기 28:10~19 찬송가 212장

⁽¹⁰⁾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¹¹⁾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¹²⁾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¹³⁾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¹⁴⁾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¹⁵⁾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¹⁶⁾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¹⁷⁾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¹⁸⁾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¹⁹⁾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14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10절).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15~19절).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구원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의 결과는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묵상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지금 당신의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입니까?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본문 신명기 28:20~35 찬송가 278장

²⁰네가 악을 행하여 ¹그를 잊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²¹여호와께서 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²²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²³네 머리 위의 하늘은 낯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²⁴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²⁵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²⁶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²⁷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 받지 못할 것이며 ²⁸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²⁹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락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³⁰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³¹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³²도와 줄 자가 없을 것이며 ³³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³⁴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³⁵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³⁶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본문 해설

모세는 하나님의 저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27~29절),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던 모든 복이 사라져 아내, 자녀, 집, 포도원, 소떼, 그리고 양떼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30~35절).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 속에서 누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은혜를 잊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살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악을 행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경의 장면을 찾아보고, 지금 나의 신앙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적용 질문

지금 당신이 끊어버려야 할 악한 행동이나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본문 신명기 28:36~46 찬송가 255장

³⁶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³⁷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³⁸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³⁹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⁴⁰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⁴¹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⁴²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⁴³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⁴⁴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⁴⁵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⁴⁶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본문 해설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36절). 그리고 나라가 망하였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계속 저지른다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꼬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43~45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그들과 그 후손의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다윗 왕 때의 찬란함에서 떨어져, 결국 앗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로 살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때 우리도 성도라는 자리에서 떨어져 결국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욱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묵상 질문

지금 당신의 삶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그 악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본문 신명기 28:47~57 찬송가 255장

⁴⁷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⁴⁸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명예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⁴⁹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 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⁵⁰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⁵¹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⁵²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⁵³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⁵⁴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⁵⁵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⁵⁶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⁵⁷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날 결과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47절).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방인의 침략의 결과를 나열하고(28절),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당할 모든 괴로운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49~5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셔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노 하셨습니다(겔 16장, 23장).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큰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내게 주신 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입니까?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본문 신명기 28:58~68 찬송가 204장

⁵⁸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⁵⁹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⁶⁰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⁶¹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⁶²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⁶³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뿔릴 것이요 ⁶⁴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네가 그 곳에서 나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⁶⁵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⁶⁶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⁶⁷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⁶⁸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본문 해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입니다. 그들은 43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며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당했던 온갖 질병을 당하게 하시고, 이전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는 그 심판이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67절)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백지화 할 수 있는 두려운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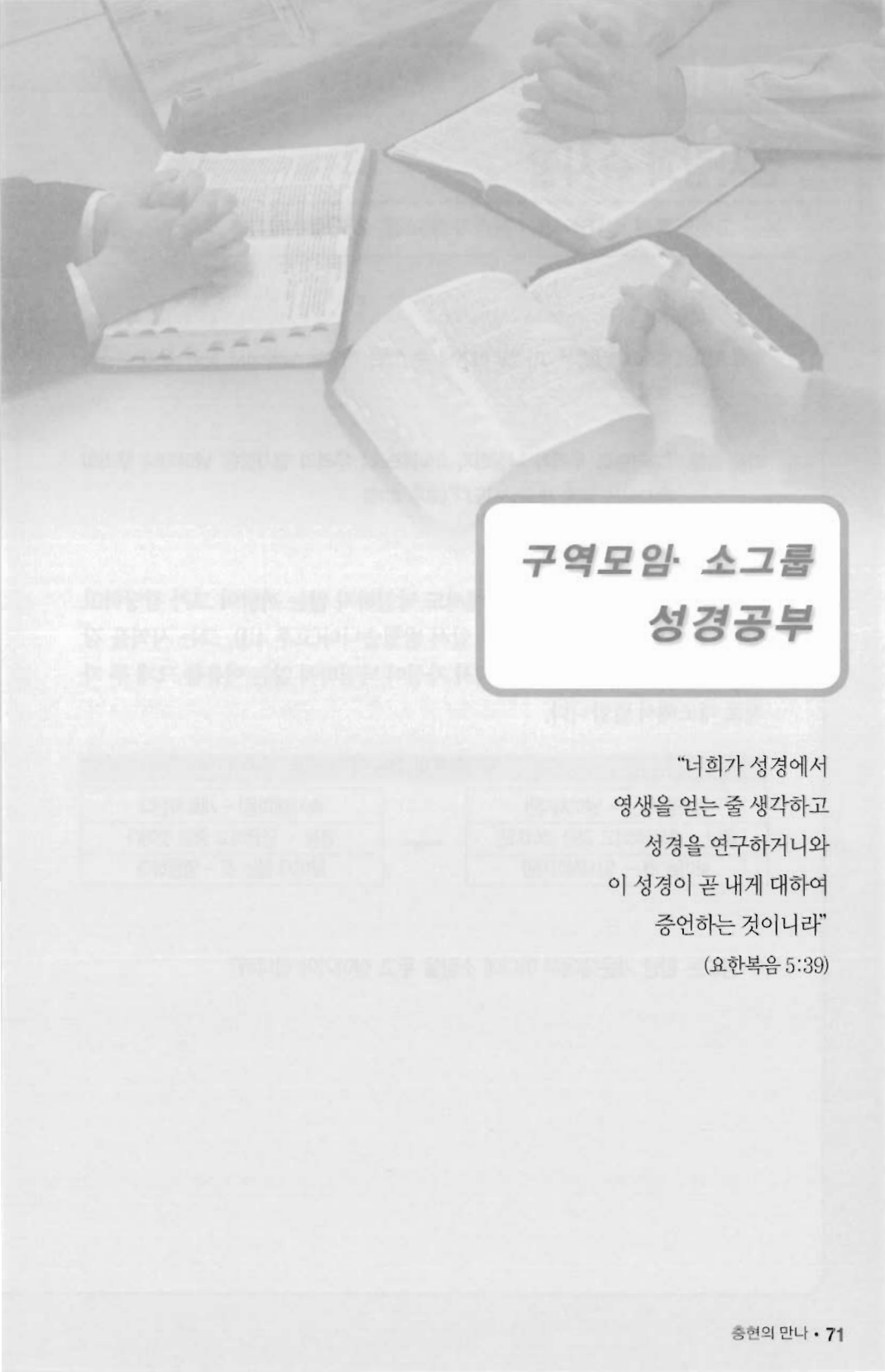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받기 위한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지금까지 당신의 신앙은 축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까?

적용 질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신이 지금 즉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겉사람과 속사람

본문 고린도후서 4:16~18 찬송가 354장, 366장

학습 목표 : 성도로 살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 삶에 적용해 보자.

외울 말씀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

■ 본문 배경

바울 사도는 자신이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까닭이 그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위대함 때문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고후 4:1). 그는 사역을 감당하며 받게 되는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대조해서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육신) - 낡아지지만	속사람(마음) - 새로워진다
환난 - 일시적이고 경한 것이지만	영광 - 영원하고 중한 것이다
보이는 것 -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 영원하다

※ 성도는 환난 가운데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겉사람과 속사람

고린도후서 4:16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온갖 환난과 시련이 남아질 겉사람(육신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서의 바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16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사람'은 마음과 동의어로서, 사람의 중심, 의지, 감정, 사고, 애정의 원천을 뜻합니다. 즉 바울은 육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핍박을 마주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속사람은 매일의 갱신과 강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 날마다 남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16절)

2.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16절)

3.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6절)

환난과 영광

고린도후서 4:17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지금의 환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해 매우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환난은 훨씬 무겁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해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그는 비록 몸의 낱아짐을 스스로 목격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4. 일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17절)

5.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17절)

6.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바울은 환난과 시련으로 비록 자신의 육신(겉사람)은 낡아지고 상할지라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음(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계속적으로 새로워질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18절).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곧 계시될 것, 즉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바울은 미리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롬 8:24~25 골 3:1~5 히 11:1~3).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에서는 쇠퇴해 가고 부패해 가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하고 부패하지 않는 자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롬 8:19~23 빌 3:20~21).

■ 적용하기

1. 당신이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일시적인 환난은 무엇입니까?
2.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이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영원한 집

본문 고린도후서 5:1~10 찬송가 490장, 491장

학습 목표 : 죽음 이후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하는 일들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

외울 말씀 :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후 5:1)

■ 본문 배경

바울 사도는 역경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장차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집에 거할 소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	
이 땅의 몸 - 일시적이고 허술한 장막	하늘의 몸 - 영원하고 영구적인 건물
이 땅의 몸 - 탄식	하늘의 몸 - 기쁨
이 땅의 고난 - 일시적	하늘의 영광 - 영원

※ 당신은 몸의 부활과 함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허술한 장막과 영원한 집

고린도후서 5:1~7을 읽으십시오.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영혼소멸설을 믿었는데, 영혼은 악한 육신에 갇혀 있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즉시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된다고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에게 부활의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1. 바울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입니까?(1~2절)

2. 부활의 몸을 보증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5절)

3. 바울은 영원한 집에 대한 약속을 무엇으로 확신했습니까?(6~7절)

성도의 영생과 심판

고린도후서 5:8~10을 읽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우리 모두는 재판관이신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에서 성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그리스도께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까지 면제시켜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4.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9절)

5. 성도라도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10절)

6.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고후 1:14; 2:10, 17; 3:18; 4:2, 14).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말과 행위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훗날 재판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뵈게 될 때에 비록 구원은 잃지 않지만, 주님의 칭찬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적용하기

1. 당신이 영생을 확신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2.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본문 고린도후서 5:11~19 찬송가 211장, 212장

학습 목표 :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

외울 말씀 :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 본문 배경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오하던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형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은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18~19절). 그로 인해 그는 사람들을 권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20절).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역

고린도후서 5:11~15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11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20절)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정죄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들은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앎으로 사람들을 권면해야 합니까?(11절)

2.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14절)

3. 바울이 14절에서 고백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결과

고린도후서 5:16~19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15~16절에서 “이제부터는 … 아니하노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화목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음의 것들을 극복했다고 밝힙니다. 즉,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15절),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16절).

4. 우리는 누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됩니까?(17절)

5.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18절)

6.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은 사도들을 부르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18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18절)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메섹 도상의 환상 가운데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자기 자신과 화목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된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 적용하기

1. 당신이 가족이나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의 죄의 본성을 버리기 위해 당신이 오늘 결단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본문 고린도후서 5:20~6:2 찬송가 420장, 433장

학습 목표 :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과정을 깨닫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 전도의 일에 힘쓰도록 해 보자.

외울 말씀 :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 본문 배경

‘화목’은 이미 성취된 사실이면서도(고후 5:18)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고후 5:19)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화목의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화목하는 것’은 해를 당한 쪽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구원 사역에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신(使臣)

고린도후서 5:20~21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자신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20절)

2.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20절)

3.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21절)

그리스도의 사신(使臣)

고린도후서 6:1~2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자신들의 고백에 맞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권위에 기초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고후 5:14~21).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바울에게는 진리를 믿는 자들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까?(1절)

5. '구원의 날'은 언제를 가리킵니까?(2절)

6.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예언했습니다(사 49:8~12, 23~26).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요 3:16~17). 이 날은 '구원의 날'(2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대하던 일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을 때가 올 것이라고 희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단을 미룹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지금처럼 적당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구원의 날을 지속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使臣)으로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 적용하기

1.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당신이 오늘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당신이 오늘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본문 고린도후서 6:3~13 찬송가 208장, 212장

학습 목표 :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영혼들에게 보여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외울 말씀 :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

■ 본문 배경

바울 사도는 앞서 새 언약의 직분(고후 3:6)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직분에 의해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고후 3:9; 5:21),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고후 3:8, 18)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 속에서도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거짓이 없는 사랑 등 성령의 열매를 맺은 복음 사역의 특성들을 나열합니다(6~7절). 그는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온갖 반대를 만났지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9), 곧 영의 직분(고후 3:8)을 받은 자로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3절) 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고난과 감사

고린도후서 6:3~10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 증거라는 자신의 거룩한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겪어 온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견뎌온 고통스러운 상황을 제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도의 직분에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1.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4절)

2. 바울이 당한 고난들은 무엇입니까?(4~5절)

3. 바울이 고백하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의 특성들은 무엇입니까?(6~7절)

끝없는 사랑

고린도후서 6:11~13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고후 1:12~13, 23~24; 2:17; 4:1~2; 5:11). 왜냐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극도로 혹평하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감증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열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4.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11절)

5.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13절)

6.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늘 염려했고(고후 11:28), 그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지만, 단순한 호소 차원에서 그들을 설득시켜 삶의 방식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 적용하기

1. 당신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2. 당신이 사랑을 보여야 할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5년 7월

Copyright© 2015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권명옥 · 집필진 | 하옥성 이성환 김성은A 이기성 이범규 김원기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